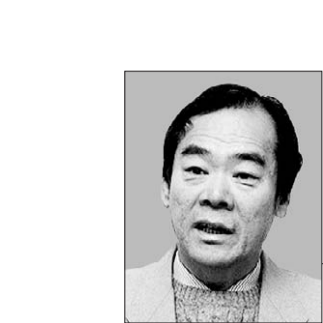


5월 가정의 달이 또 돌아왔다. ‘모’라는 말을 다시 쓰는 이유는 매년 우리들이 맞이하고 보낸 가정의 달이지만 언제나 5월 한 달 뿐 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실현이 소홀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근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일 년 365일 모두가 가정의 날인데 굳이 가정의 달이라고 세심 정해 놓고 실천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다. 하긴 말은 옳지만 건강한 가정으로의 실현이 미흡하기 때문에 5월 한 달이라도 정해 놓고 마음새김을 하자는 논리일 것이다. 1930년대의 한 사회학자가 당시를 기점으로 50년 정도가 지나면 가정이란 없어진다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 이해되기로는 당시 논문을 썼던 사회학자의 개념으로 정의 내렸던 가정이란 개념이 변화할 것이란 강한 시사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했을까? 구조적으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했다. 그것은 가족이 중심이 되어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른 가족구조의 적응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이에 더하여 개인이 자기중심적인 가족으로 확고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과정에서의 진통을 보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이 주된 갈등의 중심축에 있다.

독립적인 자아와 자기중심적인 자기실현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가족구성원 각자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어나가는 추세가 변한 것이라면 변한 것이다. 옛날의 가족제도 아래에선 자신이 주체일 수도 있고 종속된 존재일 수도 있고 위상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이근후열린마당의원

**‘가정의 달’을 다시 생각하다**

이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족구성원 모두가 독립적인 자기중심의 실현을 하려고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문제로 찾아온 내담자를 만나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의 종이라고 표현한다. 자녀는 자녀대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항변이다. 갈등의 중심축에서 있는 부모자녀 관계를 부처님에게 묻는다면 역시 <부모은중경>에 실린 내용을 다시 설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부모은중경>에서 지적하는 바가 지금에도 달리 주장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와 지어진 인연의 중요성을 설파한

내용을 수정할 만큼 다른 정론이 없다.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녀를 인태하고 출산하고 길러주고 격정하고 사랑하는 인연을 새기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쉬운 이야기를 누가 모르라 하지만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는 듯하다. 옛날에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알지도 못하는데 행함을 기대하겠는가. 부자자효(父慈子孝)란 말이 있다. 부모는 마땅히 자애롭고 자녀는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부모는 지나치고 자녀는 모자라는 사랑이라서 자녀에게 효도할 것을 더 많이 가르

친 적이 있다. 하지만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부모자녀 간의 사랑을 원천적으로 다시 학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모르면 가르치고 알면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 <부모은중경> 말씀이 변함없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은 세월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부모와의 소중한 인연을 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어떤 방편으로 실현하여야 할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들은 옛날처럼 대가족제도로 아니고 기능적으로 일차적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단일 문화와 가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다문화 속에서 지구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환경이라면 마땅히 실현 과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통적인 행동양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선 꼭 전통적 방법만이 효를 실현하는 외적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방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에 온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현대적으로 실현해갈까 깊이 생각해 보자. 미국 前 대통령인 레이건의 아들이 최근 한국에 와서 “차매환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경험담이니 절실하진 않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였는가는 문제는 금급하다. 어쨌든 오늘날에 걸 맞는 사랑의 표현이 어떤 행동일까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불자의 눈**

**부처님 만나는 길을 닦자**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 큰 소리로 부처님오신날! 하고 외쳐 봅시다. 과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물론,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장 되어 있는 ‘본래 무일물’의 진리라는 선가(禪家)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체가 연기적 순환 구조 속에 있음을 깨달아 집착의 굴레를 벗어난 곳이 ‘부처의 자리’라는 교화의 근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가? 라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기2552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던지는 이 질문의 유효성! 인간 세상에는 부처님이 와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고 온갖 범죄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곳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범죄가 있는 곳, 인간의 꽃이 시들고 악의 꽃이 무성한 곳에 부처님은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오지 않았습니까. ‘착함도 악함도 생각하지 말라’던 가르침은 공허한 관념놀이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음’을 알고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거문고 줄을 고르라’던 가르침도 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부처님은 어디에 와 계시는 걸까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던 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경전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토대로 부처님이 오시던 그 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 부처님이 와 계시는지 알기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납니다. 왕비의 옆구리를 열고 길에서 태어납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의 깨끗한 산실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나뭇가지 아래서 태어납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계급과 권력과 권위 그리고 부와 명예를 따르기도는 인간 본래의 모습 우주의 본래 진리로 통하는 길을 추구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길에 와 계시는 길,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로 향한 길에 부처님은 계시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분명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입굴 걸음을 걸고 “천상 천하 유아독존 삼세계고 아량인자”를 외칩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믿지 않는 불자는 없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극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존엄의 선언이고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은 없음을 밝힌 것이며 마땅히 일체 생명이 더불어 편안한 세상을 열겠다는 사자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입니다. 존엄한 생명을 존엄하게 알고 온 생명이 더불어 행복고자 노력하는 그 곳에 부처님은 와 계시는 길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쪽에 있습니다. 자신의 안쪽에서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일체를 걸림 없이 들이고 낼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만나는 길을 닦으십시오.

**놀이공원의 공포**

“삼촌, 왜 그래?” 대학생 한군은 당황하고 있었다. 놀이공원에 괜히 왔다고 생각했다. 일요일에 조카를 봐달라고 누나부부가 용돈을 준 날이었다. 하루 종일 뭘 할까 물어보니 초등학교 조카는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다. 문제는 바이킹을 탈 때였다. 조카가 꼭 같이 타자는 것이었다. 영겁길에 함께 줄을 엮다. 바로 눈앞에서 바이킹이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한군은 끔찍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바이킹을 탔었는데 죽는 줄 알았다. 기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몸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것 같아 무서웠다. 움직이는 압력에 심장이 맞는 것 같고 내려올 때도 고통스러웠다. 지옥 같은 몇 분이 지날 때 한군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잘 내려올 수도 없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워보기가 난생 처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카 때문에 또 가게 된 것이다. 잔뜩 겁이 났다. 조카에게 “너 혼자 탈 수 있지? 삼촌은 밖에서 기다릴게” 했다. 조카는 “싫어. 혼자 타면 재미없어. 같이 타, 삼촌” 하며 손까지 잡았다. 한군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길도 없었다. 오직 바이킹을 탄 후에야 정해진 대로 나가는 길이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오고 걱정이 되었다. 조카에게 “넌 바이킹 좋아하니?” 했더니 “그럼, 얼마나 재미있는데! 난 을 때마다 꼭 다.” 조카는 한 술 더 떠서 “탈 때는 꼭 가장자리에 타야 돼. 그래야 제일 높이 올라가서 스릴이 있거든. 가운데 자리는 덜 움직여서 재미없어, 삼촌,

**“저걸 왜 타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2 놀이공원에서 만난 부처님**

우리 탈 때 빨리 가서 양쪽 끝에 앉자, 응?” 눈앞이 아찔해졌다. 아니, 가득이나 현기증이 나고 무서운데 끝에 앉아서 제일 높이 올라가자고? “끝자리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적당히 앉자.” 해보았지만 “아냐, 그래야 재미있어!”하며 조카는 완강했다. 그 귀엽던 조카가 언제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 이제 공포가 한군을 사로잡았다. 차례가 줄어들 때마다 한군의 가슴은 점점 저러왔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아이도 태연하게 타는데 난 이게 뭐가 싫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혹시 고소공포증인가 싶었다.

무서웠다. 고문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 한군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다는 부처님이 떠올랐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속으로 외쳤다. “부처님, 도저히 못 타겠어요, 두려워요.” 몇 분 후면 차례가 된다.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한군은 간절히 빌사적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열심히 마음속으로 애원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끝내 운명의 차례는 왔다. 조카는 신이 나서 한군을 이끌고 제일 끝자리로 갔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꼭 고문대에 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바이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군은 앞의 난간을 꼭 붙들고 ‘죽을 준비’를 하였다. “부처님, 살려주세요!”하고 마음으로 외쳤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상했다. 바이킹이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분명히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다. 몸과 마음에 아무 일

박감이 없었다. ‘고장났다?’ 하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바이킹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평지에서 천천히 차를 타는 것 같았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움직이며 편안한 것이다. 이상한 기분으로 마쳤다. 조카는 “삼촌, 그거 봐, 끝에 앉으니까 더 많이 흔들리지?” 한다. 흔들리기는커녕 너무 편안했는데, “그래, 재밌던데” 하며 미소까지 지어주는 여유가 되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그 날 내내 한군은 그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생각했다. 아니, 예전과 똑같은 바이킹인데 왜 그렇게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을까. 문득 타고 있던 동안 무척 편안하고 자비로운 느낌까지 들었음을 회상했다.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기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이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을 찾은 것뿐이다. 정말 그래서 마음속의 부처님이 도와 주셨나 하고 생각하니 놀라웠다. 내가 무서워하니 자비롭게 나누어 실체보다 느리게 느끼도록 해주신 것인가, 스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깊고 간절하면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라는 말씀이 그 전에는 절실하게 다가오지 못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통했나봐요, 신기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짧은 체험이었지만 한군에게는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다는 자성본래불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코에이 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던 하던 통증이 오면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했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오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사용해보는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이가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퐁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5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5월 30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